

부채도사 금복연

누가 부채를 그토록 사랑했는가? 청곡부채연구소에 가보면 세상의 모든 부채가 바람을 낸다. 전통 부채를 전승·발전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우리 것의 또 다른 창조이다. 금복연의 부채는 현대적인 미를 결집한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외갓수 칠기장 정덕부

고집스럽게 걸어간 칠기인생. 세상 다른 일은 몰라도 칠기는 안다. 변하는 시대에 그의 고집은 변하지 않았지만 작품은 발전했다.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도태공예를 완성시킨 우리시대의 장인이 정덕부이다.

짚·풀 공예가 김정홍

누가 짚과 풀이 사라졌다고 하는가? 김정홍의 손에서는 지금도 짚과 풀이 숨을 쉰다. 그가 엮어가는 것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던 짚·풀의 생활이다. 그래서 작품속에는 진한 향수와 포근함이 묻어난다.

혼을 담는 도공 홍재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업을 이어 50년간 걸었던 도공의 길. 홍재표는 전통 장작가마만을 고집하는 고집쟁이이다. 결국 그는 진사라는 우리 전통 유약을 연구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고집스런 옹기장 김일만

플라스틱 제품과 광명단 옹기에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옹기의 맥을 잇는 고집스런 옹기장인. 여주에서 7대째 아들 4형제와 '오부자 옹기'를 운영하며 전통방식으로 만든 숨쉬는 전통옹기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연염색가 이민정

온갖 풀들로 자연의 색을 만들어내는 천연염색가 이민정. 손톱에 쪽물 지워질 날 없지만 그 손으로 건져 올린 천에는 하늘이 배어 있다. 시골집과 너른 마당으로 만들어진 천연염색연구소에는 넉넉함과 고즈넉함이 가득하다.



부채도사 금복현



각박한 세상 쉬어갈 한줌 미풍이 되리라

햇별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이에게 따스함을 베풀듯이 부채는 만인

인공의 바람이 판을 치는 세상, 지구가 뜨거워지고 사람은 각박해지는 이

에게 고루 평등하다. 부채를 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

때, 너무 강하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부채가 전해주는 평등의 미덕과 고

도 선선한 부채바람을 느낄 수 있다. 함부로 연탄재를 걷어 차지 말

즈넉한 맛이 생각난다. 전국 방방곡곡 부채가 있는 곳이라면, 부채를 잘 만

라던 어느 시인의 구절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번 바람이 되어 주

드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막론하고 찾아다닌 금복현의 부채역정!

있는지 햇빛을 가려주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돌아보면 그 사람의 자리에서 빛나는 부채바람이 일어난다.



부채속에는 문화가 숨쉬고 있다

부채의 상상력

“요술부채”라는 전래동화가 있다. 여기서는 바람을 부치기만 하면 코가 키졌다 작아졌다하는 신기한 부채가 등장하여 권선징악을 설파한다. 『서유기』에서는 화염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파초선”이라는 부채가 있어, 신과 인간이 함께 하는 한바탕 상상계를 풀어낸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굿판에서도 무당은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 하며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부채는 이렇게 지상의 것이되, 천상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생각되어 왔다. 부채가 본디 하늘의 소관인 “바람”을 만들어내는 “영험”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선인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이 절로 이해가 된다.

항복한 후백제의 왕 견훤이 고려 태조 왕건의 즉위식에 선물했던 공작선(공작의 꼬리로 만든 부채)이 우리나라 최초의 부채로 알려져 왔으나 기원전 2세기 경남 창원외의 다호리 유적 발굴 과정에서 구멍이 여덟개 뚫린 대나무가 출토됨으로써 우리나라 부채의 기원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부채는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왔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은 춘향이를 떠보는 과정에서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또한 판소리 공연에서는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음의 고저와 장단을 맞추기도 한다.

2000 경기기쁨이 공예부문에 선정된 금복현, 30년 살아온 부채 인생을 반추하고 또 수없이 만들어냈을 바람을 떠올리며 그를 “부채도시”라 칭해도 무방하겠구나라는 우스개 생각을 해 보았다. 금복현은 올해 나이 53세. 그런 그의 부채경력이 30년이라니 외곬인생을 살아온 셈이다.

사람들은 부채를 단순히 바람을 내는 물건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부채는 그 자체가 종합예술이다. 또한 부채속에는 시대의 문화적 상징이 담겨있기도 하다.



나는 부채가 좋다

고향인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금복현은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선추 조각과 도장을 파는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선추는 부채의 고리나 자루에 다는 것으로 일일이 손으로 깎아 부채의 멋과 풍류를 더해주는 장식품이다. 금복현은 그 선추 조각이 좋아서 그 노인을 꺾이나 성가시게 했었다. 노인은 금복현에게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선추 조각에 관심을 가져 무얼하느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만남은 장인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으니 그의 나이 겨우 열두어 살 시절의 일이다.

그 뒤 금복현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고등학교 시절, 옛 것에 관한 또 다른 관심이 시작되었다. 까까머리 소년 금복현은 틈만 나면 인사동을 전전하면서 각종 화폐수집에 열중했는데, 그 거리에서 다시 한번 부채와 조우하게 된다. 어린 시절 동네 거리에서 그를 매료시켰던 선추조각의 기억이 되살아나 부채와 선추 조각을 향한 탐미의 길이 복구된 것이다. 그리고 아예 조그만 골동품상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부채·선추와 함께 하는 삶을 시작하였다.

그 곳에서 만났던 부채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금복현의 인생을 결정해 버렸다. 이제 전국방방 곳곳 부채를 만드는 사람, 부채가 있는 곳을 찾는 그의 “부채역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 와중에 고 김홍식 옹으로부터는 나주선을, 고 송두찬 옹으로부터는 통영 미선을, 추흥렬 옹으로부터는 남원 막부채를 전수받아 전국의 내로라하는 명인들의 솜씨를 이어받게 되었다. 하지만 금복현의 길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전통예술에 관한 관심도 인식도 부족한 가운데 그의 정성이 담긴 부채를 사겠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

바람 잘 날 없는 세상, 때로는 부채가 바람을 맞는다



종합예술로서의 부채

금복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정교하게 조각을 해야 하는 손잡이와 선추 만들기, 완전히 마르지 않은 대나무를 결대로 떼내 일정한 크기로 둥글게 깎아야 하는 부채속살 만들기, 부채면과 손잡이의 접합부분을 튼튼하면서도 장식성있게 하기 위해 종이에 문양을 그리고 오리는 걸딱지게 만들기, 부채에 각종 민화나 그림을 그리는 일, 한지에 들기름을 먹여 또 능화판에 밀어 은근한 문양을 내고 강하게 만드는 일, 부채면으로 쓸 한지를 염색하는 일 등등 부채 하나를 만들기 위해 그는 목공예가



부채는 종이와 살, 그리고 자루로 이루어진다. 그것들을 모아 염색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부채가 완성된다. 부채 하나에는 거의 모든 예술의 영역이 녹여있다.

가 되기도 하고, 염색공예가가 되기도 하며, 화가가 되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을 홀로 해내며 기술을 연마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부채의 멋 속에서 그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한 금복현의 의지는 그 자체만으로 음지가 아니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사꺾다는 사람이 없어도 땀 흘리며 하나하나 만들어낸 그의 작품들이 발하는 빛을 오래도록 숨길 수는 없었던 것이다. 시절 역시 변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우리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금복현의 부채들도 이 세상에 그 미(美)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80년대 이후부터 금복현의 예술세계는 가속도가 붙게 된다. 82년부터 90년까지 해마다 전시회를 열었으며 각종 공예대전을 수상하였고, 그의 예술적 재능을 칭송하는 많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공로패를 받았다. 저술활동도 활발히 해서 전통부채 뿐만 아니라, 목각 공예 교본, 옛 안경과 안경집 등을 이미 발간하였으며 현재 물병·표주박·공예 미학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그를 찾는 곳도 많다. 강단과 박물관, 미8군 등에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알리고 있다. 또한 박물관 가족공예교실에 참여하여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보급하고 가족 공동체의식을 일깨우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도 크다.





금복현의 끝나지 않은 부채이야기

부채는 크게 절부채(자루 없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부채)와 자루가 달린 방구 부채로 구분된다. 금복현이 주로 만드는 것은 방구부채로, 방구 부채의 종류만 해도 어림잡아 20가지나 된다. 그는 부채살의 끝을 연잎의 맥과 같이 휘거나 바퀴모양으로 배열하여 만드는 연엽선과 연엽운선, 가는 대살을 촘촘하게 배열한 세미선, 부채살의 끝부분을 꺾어 절묘한 곡선미를

살린 째장선과 곡두선, 그리고 부채면에 십장생도나 화조도 등 각종 민화를 그려 넣거나 색지를 일일이 오려붙인 단청부채, 파초선, 화조선, 태극선 등 10여 가지에 이르는 부채들을 재현하거나 재창조하고 있다.

부채와 자루에는 무엇이 담길까?

여름철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따가운 햇살을 피하게 하는 것이 부채이다. 그러나 부채가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채에는 다양한 그림과 문양이 있어 그 예술성도 함께 짐작케 한다. 또한 그런 예술품을 선물하는 것에서 넉넉한 인심이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 식물을 도안한 것

식물을 부채에 그려 넣고 새기는 이유는 많은 복과 함께 자손의 번창하라는 의미이다.

- 석류 : 석류의 많은 씨처럼 자손의 번창을 기원한다.
- 버섯 : 자손의 장성과 다복을 의미한다.
- 복숭아 : 식물문양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신선들이 먹었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대나무 : 대나무는 그 모습처럼 곧은 절개와 강직함을 상징한다.
- 연꽃 : 모든 계층에 폭넓게 사용된 문양으로 언제나 고결함을 잃지 말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 동물을 도안한 것

여러 가지 동물을 비롯한 곤충·새 등의 문양은 부귀와 상서로움을 의미한다.

- 봉황 :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 용 : 권력과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 학 : 학은 장수를 누리는 동물인 동시에 고귀함을 상징한다.
- 나비 : 꽃을 찾아드는 나비에게서는 사랑을 느낀다. 그리고 너울너울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은 자유로움을 나타낸다.
- 원앙 : 원앙은 금슬 좋은 부부사이를 의미한다.

부채라고



전통부채를 재현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변용하는 금복현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전통적인 소재를 쓴다는 것이다. 부채살에는 대나무·손잡이와 선추에는 대추나무·배나무·느티나무·떡감나무·참죽나무를 쓴다. 또한 부채면은 주로 한지를 사용하는데 닥종이야말로 은근한 화려함과 우아함이 부채의 곡선미와 잘 어울어지는 최고의 원자재라고 말한다.

어찌보면 너무나 단순한 도구지만 부채는 인류의 기술과 정신, 지상과 천상이 함께 하는 문화 상징물이다. 섬세한 손끝으로 문화를 만드는 금복현, 그의 꿈은 자신의 소장품과 작품을 모아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부채 박물관”은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한, 또한 아름다운 곳일까. “부채 박물관”이라는 또 다른 문화선물을 받기 위해 그의 길을 꼭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그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의 격려는 쉬어갈 수 있는 바람이 되어 주리라.



다 같은 부채가 아니다

정국부채연구소에 있는 금복현의 공방, 대와 종이와 나무가 그의 손을 거쳐 아름다운 부채로 탈바꿈한다.



찾아가는 길

광명사거리에서 안산방향
4km 애기능 사거리
온산초등학교 맞은편

가볼만한 곳

오리 이원의 대감 묘소
오리 이원의 기념 전시관 및 고택



나는 내 인생에 변하지 않는 옷칠을 했다



작은 공방, 옷과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칠하고 말리고 부비는 과정의 반

현대인들이여 너무 급하지 않은가? 너무 빨리 변하지 않은가? 내가 변하

복이 인생이런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도 고

지 않은 칠기와 같은 사람인지, 변하지 않는 고집이 있었는지, 한 번 돌

집스러운게 나이던가? 다른 것 하나 몰라도 칠기만은 알고 있다. 아내와

아불 때이다. 때 묻은 물건에 정성 한번 기울인적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 없진 않지만 이제는 그들도 나를 이해해준다. 고

이다. 새벽이 끝날때까지 손길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집스러운 장인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

느껴보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지혜일 것이다.

나는 못도 밖을 줄 모르는 사람이 줄 알았더니, 칠기장이더라

칠기의 생애사

'사' 자가 들어간 신랑을 만나려면 열쇠 3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전 최고의 혼수품은 차도 집도 아닌 자개장이었다. 까만 옷칠에 반짝이는 조개껍질이 알알이 박혀있는 자개장에는 장인의 숨결이 깊숙이 배어 있었다.

자개장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우리 일상의 변화와 같은 궤적 속에 놓여 있다. 온돌문화에서 침대문화로,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사회가 변하면서 그 문화와 함께 했던 물질과 정신도 사라졌던 것이다. 침대가 놓여 있는 방에 자개장은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원목으로 만든 장롱이나 붙박이장들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사라져간 안방이라는 개념, 안방에 놓여있는 자개장은 흡사 집안의 권위와 중심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속에 전통과 민속도 천대와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 칠기의 유래는 청동기시대말까지 올라간다. 고구려의 고분에서도 칠기의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백제와 신라에서도 발달된 칠기의 이면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중국의 칠기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와 함께 했던 칠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늘 함께 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못본 채 외면하는 동안에도 옷칠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정덕부(60)다.



정덕부는 요즘은 새로운 칠기를 개발하여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자기에 옷칠을 하고 자개를 박거나 문양을 넣는 도태공예가 그것이다.

칠기와 함께 한 인생

호통소리와 함께 붓이 날아왔다. 옷칠을 하던 그 붓이었다. 붓은 정덕부의 이마를 맞고 떨어졌다. 갑자기 설움이 복받쳐 왔다. 칠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가 옷칠을 하는 부분이다. 옷칠을 할 때는 주위에 절대 먼지가 일어서는 안된다. 선생님의 노여움과 설움이 함께 한 날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나이가 들어 시작한 일이라 더욱 서러웠다고 정덕부는 말한다.

당시 그가 태어난 경남 통영에서는 칠기하는 사람이 잘 살았다고 한다. 칠기를 하면 공무원 월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때였다. 농업에 종사하시던

설움은 있지만
포기는 없다



아버지의 권유로 정덕부는 최성묵의 문하에 입문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의 때늦은 입문이라 남들보다 훨씬 어려움이 많았다. 2~3명이 함께 일하는 소규모의 공방이었다.

전통칠기는 세심한 수작업과 예민하고 수많은 공정, 그리고 끊임없는 정성을 거쳐 만들어지는 공예품의 최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칠기 제작 공정은 크게 밀일·그림일·옷칠일의 3단계 과정 45공정을 거친다. 특히 옷칠 건조는 온도와 습도가 알맞아야 하기 때문에 먼지가 없는 깨끗한 칠장이 필요하다. 옛날 고사지낼 때도 건조칠방에는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따로 고사를 지낼 정도였다고 한다.

정덕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익혀나갔다. 칠기장으로 타고난 체질을 지녔는지 이상하게도 정덕부는 처음부터 옷이 타지 않았다고 한다. 칠기의 기술을 모두 익힌 후에는 '일성공예사'라는 자신의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방은 오래가지 못했다. 칠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수출이나 유통을 알 리가 만무했고 결국에는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먼저 도자기를 주문하여 옷칠통에 담갔다
그집어낸다.아루정도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
말린후 사포질을 한다. 1번, 2번, 3번 옷칠을
한후 자개를 붙이거나 무늬를 넣는다.
그리고 또 여러번 옷칠을 해야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나의 마지막 식구 칠기

사기를 당하고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다. 칠기를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지만 외곬수가 되어 돈과 정열을 모두 칠기에 쏟아 부었다. 칠기해서 돈을 벌면 다시 칠기에 투자하고 모자라면 빌려서라도 칠기를 만들었다.

아내는 정덕부를 집안에서 못도 하나 박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칠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덕부이다. 자식들도 내가 배운만큼은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칠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무턱대고 환영해주지는 않았다. 아내된 처지에서, 자식된 입장에서



정덕부의 고집은 차라리 고역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가족들도 얼마전부터는 정덕부를 이해해주기 시작했다.

공예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있다. 밥벌이도 되지 못하는 공예를 버려두고 공사판의 현장에서 하루의 일당을 벌기도 하고 애써 만들어 놓은 작품을 헐값에 내다 팔기도 한다.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할수록 점점 공예인의 생활은 궁핍해지기 마련이다.

돈이 되지 못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지금 정덕부의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50줄에 가깝거나 50을 훌쩍 넘긴 사람들 서너 명밖에는 되지 않는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금전적인 이익이 보장되지도 않는 칠기의 현실, 정덕부는 그런 악순환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덕부는 스스로가 자신을 성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도 예전에도 칠기는 자신의 한 식구였기 때문이다.

작은 공방에 칠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한다. 배우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환경도 열악하지만 이미 천직이 되어버린 칠기장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칠기가 있어 행복하다.

전통의 새로운 창조

칠기는 바탕에 쓰는 재료와 문양에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구분된다. 바탕재료를 이용한 칠기로는 나무를 이용한 목심(木心)칠기, 대나무를 이용한 죽심(竹心)칠기와 남태(藍胎)칠기, 가죽을 이용한 칠피(漆皮)칠기, 금속의 녹방지를 위해 칠한 금태(金胎)칠기, 토기나 도기를 이용한 와태(瓦胎)칠기 또는 도태(陶胎)칠기, 종이를 이용한 지승(紙繩)칠기, 베를 이용한 건칠(乾漆)칠기 등이 있다.

문양에 쓰인 재료에 따라서는 자개를 사용한 나전(螺鈿)칠기, 금속을 사용한 평탈(平脫)칠기, 거북이 껍질을 사용한 대모(玳瑁)칠기, 금박을 사용한 금박화(金箔畫), 그림이 마르기 전에 금가루를 뿌린 금분화(金粉畫), 종이를 오려 붙인 지장(紙裝)칠기 등이 있고, 이 밖에도 보석이나 어피(魚皮)를 이용하기도 한다.

정덕부가 요즘 새롭게 개발하여 특허출원중인 칠기는 토기나 도기를

칠기이야기

■ 가깝고도 먼나라 - 일본의 칠기 역사

우리나라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에서 칠기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은나라와 주나라때부터 칠기를 이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한국의 칠기가 중국을 능가하게 된다.

일본칠기는 조몬[繩文]전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로는 호류사[法隆寺]의 다마무시노즈시[玉忠廚子]가 있다. 이 유물은 6세기 불교전래와 함께 한국인과 중국인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나라의 공예기술과 제품이 전해진 나라[奈良]시대에는 일본칠기공예의 기초가 세워졌다. 헤이안[平安]시대에는 마키에법[蒔繪法]이 발달하고 후기에는 의장도 일본화하여 나전과 더불어 독특한 기법으로 발전하였다. 가마쿠라[鎌倉]시대에는 말안장에 나전을 하는 기법의 발달과 함께 일본 특유의 마키에기법의 기본이 완성되었다. 한국의 나전기법이 전해지고 칠기가 일본에 널리 보급된 시기는 에도[江戸]시대이다. 이 시대에 이르면 일본의 칠기도 세련된 표현양식과 정교한 기법을 보이게 되며 후기부터는 지방의 특색 있는 칠공예가 발달하였다.



칠기의



이용한 도태칠기이다. 이 도태칠기를 개발하기 위해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보통의 도태칠기는 작품성을 중시하여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실생활에서 쓰이면서도 작품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도태칠기가 정덕부의 고민이었다. 찻잔·물병·다기·술잔과 같은 도자기에 칠을 하고 문양을 만들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도자기를 구우면서 너무 많은 열을 가하면 옷이 먹지 않고 무늬가 떨어지고 만다. 또 너무 약한 온도에서 구워진 도자기는 건드리기만 해도 깨져 버린다. 도자기와 칠기를 결합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끝에 정덕부는 단단하면서도 아름다운 도태칠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현대적인 미감과 조화를 위해 옷칠이 된 도자기에 나전칠기, 금분화 등의 기법을 함께 이용했고 현대적인 산업디자인과도 연계했다. 그 결과 정덕부의 도태칠기는 개발공모전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라고 여겼던 도태칠기가 이제 칠기 기술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이 정덕부의 마음에 함께 생겨났다.

정덕부의 작품에서는 깊은 맛과 멋이 느껴진다. 목기처럼 가볍지 않은 대신에 칠기의 멋이 도자기에 녹아있다.



멋이 도자기와 함께한다.

내 노년엔 황혼이 없다

칠기장 정덕부에게엔 황혼이 없어 보인다. 노인정에 갈 일도, 소일거리를 찾아 헤맬 일도 없다. 공방에 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도자기들이 어서 옷칠을 해달라고 손짓을 한다. 그리고 공예단지에서 후배양성을 하며 칠기를 전수할 꿈도 있다.

정덕부에게 가장 힘들었던 때를 물어보자 잔주름처럼 대답이 흘러 나왔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린 아이들과 배우면서 맛기도 많이 맞았지.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지. 그리고 또 사기를 당했거든. 칠기도 세상도 원망스럽더군. 하지만 아이들에게 남들처럼 해주지 못하는 애비마음만큼이나 할까 몰라.”

아마도 성공한 칠기장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만큼의 시련이 그를 단단히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해야 하는 옷칠처럼 그의 인생에도 바래지 않는 옷의 그윽함이 덮여 있었다.

찾아가는 길

구리시와 서울 경계선 망우리
 고개부근 남일주유소 뒷편

가볼만한 곳

동구릉, 수락산, 불암산

짚·풀공예가 김정홍



비일상의 세계로 간 짚·풀의 생활

여름 모기가 극성이면 짚과 풀로 모깃불을 피우고 비가 오면 우장을 꺼내 입

면길을 함께 하던 짚신도, 온 마을 사람 모여 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승부

는다. 마을 사람들이 명석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신랑 신부가 상견

를 가리며 울고 웃었던 줄다리기도 모두 짚과 풀이 함께한 일상이었다. 그

례를 나누던 곳도 정월이면 옷판을 벌이며 왁자지껄 웃음을 나누던 곳도 명

리나 이제 짚과 풀로 엮어가는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모든게 너무 빨

석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뭐가 나왔냐고 물을 것도 없이 문앞에 걸린 금줄을

리 변해가는 세상! 그래서인가 아직도 새끼를 꼬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다.

바라본다. 아이의 힘찬 울음이 금줄위에 함께 실린다.

나는 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재현하는 것이다

지푸라기와 함께 한 나날들

어느새 삭아버린 초가를 이어야만 하는 고단함을 이제는 느낄 필요가 없다. 밤새 사랑방에서 짚을 꼬며 두런두런 나누던 이야기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많은 것이 사라져갔다. 몇 백년을 지속해오던 것들이 단 몇 십년만에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제 할 일을 잊고 박물관에서 관람객과 시선을 맞추는 것으로 만족한다.

땡땡이풀로 만든 바구니와 겨울이 되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었던 짚가리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지고 삭아간 짚과 풀들을 이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그것 뿐이라. 음력 정월 보름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던 줄다리기도 없어졌다. 장정 하나가 타고도 밭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굽게 꼬았던 줄과, 그 줄을 연결하고 승부를 겨루면서 나누던 짚은 음담과 서로를 확인하며 느꼈던 지역의 정체성과 동질감도 많이 사라져갔다.

세상을 지배하는 언술이 바뀌고 또 세상을 작동하는 메카니즘이 변하면서 그 속에 살던 사람도,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도구도 모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황토의 흙집은 콘크리트로 겨울내내 방안을 지피던 온돌은 침대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시 황토로 만든 불가마를 찾아다니며 건강을 생각한다. 편리를 쫓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쉬운

것은 그 속에 담긴 선인의 지혜와 정성이 함께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짚과 풀의 문화가 소중한 것도 그 때문이다. 모두 외면해버린 짚·풀의 생활을 다시 엮어가는 사람이 있

으니 그가 김정홍(69)이다. 1999

년 파주시 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잊혀졌던 짚과 풀의 용구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 그저 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명

맥마저 끊길 위기에 놓인 우리의 문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이다.



1999년 파주시 짚·풀문화공예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김정홍과 짚·풀의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다. 방아나를 비워 공방을 차려놓고 김정홍은 짚·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잊혀져간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재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손이 터지도록 만들고 싶은 것들

명석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열흘이 걸린다. 거기에 글자라도 새기려 한다면 족히 2주는 잡아야 한다. 그 동안에는 부르토고 갈라진 손 때문에 반창고를 끼고 살아야만 한다. 거기에 피까지 흐르는 손을 보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겨울 한철 짚·풀과 씨름하다 보면 그 두껍던 반창고 2통이 어느새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건강이 안 좋은 지금 전보다 더 많은 작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김정홍의 가업은 농업이었다. 선대부터 농사를 지어온 까닭에 짚과 풀은 가까운 일상의 도구였다. 열네살부터 마을 사람들과 품앗이를 하며 농사일을 익혀왔고 그 후로도 쪽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서 지천에 깔린 짚과 풀로 생활의 도구를 만들어왔다. 그것은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일도 아니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었기에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짚과 풀로 만든 생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지 벌써 몇 십년이 지났다.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인 만큼 잊혀지는 것도 자연스러웠다.

처음 파주시 짚품문화공예품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마을의 할아버지들과 상의를 해 보았다. 그러나 잊혀져간 것들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드문 상태였다. 짚도 보관하지 않은지 오래 되어 얼마 남아있지 않아 여기 저기서 구해야만 했다. 그 동안 집안에서 필요한 간단한 것만을 만들다 대형 작품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짚을 구하고 가만히 들여다 보니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났다. 남달랐던 손재주와 그래도 잊지 않고 생활 속에서 짚과 풀을 놓지 않았던 인연때문인지 '통일기원'이라는 글자를 새긴 명석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2달이 넘게 작업한 끝에 15점을 만들어냈다. 명석·짚신·다래끼·망태·유장 등 그렇게 눈에 익던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잘 말린 짚을 모아 작은 새끼를 꼬는 것이
짚·풀공예의 시작이다. 가는 새끼를 다시 엮어
짚신도 만들고 바구니도 만든다. 명석이나
자리는 도구와 틀을 이용 하기도 하지만
짚·풀 공예는 언제나 손이 부르트는 고된 작업이다.



나의 공방에선 지금도 짚과 풀이 숨넒다

본격적으로 짚과 풀로 작품을 만든 후에는 이것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방 하나를 아예 공방으로 바꾸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은 간혹 방송에 등장하는 방법을 참고했지만 한 번 만들기 시작하니 제작뿐만 아니라 창작과 연구에도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김정홍은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의 종류가 150점 정도 된다고 한다. 예전부터 국궁이나 서예와 같은 전통적인 것에 취미를 기울이던 터라 짚·풀과 함께 하는 일상은 즐겁기 그지 없었다. 다시 짚을 모아 비를 맞지 않도록 하고 바삭 말려 보관하기 시작했다. 산과 들에 있는 띠, 싸리, 갈대, 땡땡이 덩굴도 베어 작품을 생산해냈다. 짚·풀공예의 시작은 새끼를 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는 새끼를 먼저 꼬아 놓아야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김정홍의 공방에는 수많은 가는 새끼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질 날을 꿈꾸며 고대하고 있다. 그들은 짚신이 되고 바구니가 되고 명석이 될 것이다.



짚·풀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많지만 그래도 옛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은 짚신이다. 짚신은 옛날 서민들이 가장 애용하던 물건으로 그 용도도 다양했다. 상을 당하면 보통 짚신과는 다른 '엄짚신'을 신었고 눈이 많은 산길에서 물푸레나무의 가지를 둥글게 휘어 새끼와 짚으로 감아 만든 '설피'를 신기도 했다. 거기에 소에게 신기던 '쇠짚신'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홍에 의하면 현재까지 사용되는 것은 싸리비나 다래끼, 삼태기, 키 정도라고 한다. 김장독을 땅에 묻고 김치가 얼지 않도록 깔아주던 두드레 방석이나 가마니가 나오기 전 곡식을 담거나 운반하는데 쓰였던 먹서리, 명석 등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짚신 신기 싫어. 고무신 사줘!





김정용은 모형지계와 같은 장식품을 만들기도 한다. 짐·풀로 만든 화병은 그의 또 다른 창작품이다.

돌아보면 그것은 지혜였다

예전 농가의 장독대나 뒤꼍에 가보면 어김없이 작은 단지에 노란 햇벼나 햇콩을 담고 주저리를 씌운 터줏가리를 볼 수 있었다. 어찌보면 집안의 터주를 모시는 미신이라고 치부해 버릴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곡식에 대한 소중함이 함께 녹아있던 것이 사실이다. 지천에 깔려 '지푸라기 인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기까지 한 짚이지만 그것은 짚이 공기처럼 우리와 밀접하고 가까웠기 때문이었으리라. 선인들은 우리와 가장 가깝고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해 우리의 생활을 채웠다. 또한 짚·풀로 만든 용구들은 통풍이 잘되고 쓰기 간편하며 보관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의 화학재료가 나오기 이전, 짚과 풀만한 재료가 어디 있었겠는가?

어제 낚 새끼가 오늘은 산나물

금줄이야기

짚과 풀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짚과 풀이 단순히 생활에 머문 것만은 아니다. 위도의 띠배나 터줏가리처럼 신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으며 줄다리기처럼 마을 축제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금줄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문간에 금줄을 걸어 놓는다. 아기의 탄생과 함께 금줄이 걸리면 그 집은 비밀상의 신성한 공간으로 전이되었다. 신성한 아기의 공간에서 산모와 아기는 나쁜 기운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아들인지 딸인지 줄을 굳이 따져 물을 필요도 없었다. 금줄에 빨간 고추가 걸리면 아들이었고 솔가지가 걸리면 딸이었다. 금줄은 이미 외부와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금줄은 그 비범함 만큼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바로 금줄은 평상시처럼 오른새끼를 꼬지 않고 왼새끼를 꼰다는 사실이다. 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에서는 오른새끼가 정상이지만 바로 비밀상의 세계이자 신의 영역을 상징하는 데에는 왼새끼가 필요했던 것이다. 잡신이나 나쁜 기운은 금줄의 왼새끼에 놀라 침범하지 못한다. 때문에 제의공간에도 금줄을 쳐 놓았던 것이다. 경기도 이천의 한 마을은 마을곳이 있기 한참 전부터 금줄을 온 마을에 쳐놓는다고 한다. 그 이전에 임산부와 젖먹이 아이, 상을 당한 사람과 같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마을밖에서 거주시킨다. 마을을 정화한 후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짚과 풀로 엮었던 우리의 생활은 의·식·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행사했던 것이다.

김정홍의 나이도 이제 70을 바라본다. 이제 세상일 잊고 여생을 보낼만
도 하건만 그의 의욕은 아직도 넘쳐난다. 온 집안을 짚과 풀의 공예품으로
꾸미고 작은 전시관이라도 만들 생각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이 솟는
다. 짚·풀 공예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도 들어오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
람이 늘기는 하지만 짚·풀은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끄는 부분도 아니다. 그러나 김정홍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데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

김정홍은 말한다.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거기에 처
음과 끝의 마음이 같아야 함은 물론이다”라고 말이다. 알아보는 사람이 많
지 않더라도 더 보기 좋고 쓰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김정홍이 선인의
지혜와 장인정신을 이미 체득했기 때문이다.



정겨운 농가에는 항상 짚·풀로 만든
도구가 가득했다. 산나물을 담어오던
바구니와 곡식을 가르던 키를 보면 마치
과거의 평화로운 일상에 들어 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가득담은 바구니로

파주시 짚·풀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명석



찾아가는 길

자유로를 이용하여 문산에서 37번 국도를 따라 적성삼거리에서 백학저수지 방향으로 좌회전 4km 가월리 이정표.

가볼만한 곳

농경유물관, 윤관장군 묘, 용미리석불입상, 공릉관광지, 도라전망대

혼을 담는 도공 홍재표



전승의 장작가마에서 천년을 빛는다

타닥! 타닥! 장작이 타 들어가며 불꽃이 인다. 몇 해인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 오늘도 불꽃

이 앞을 지켜왔지만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장인이란 그런 것이다. 그토록 정

은 세상에 그득하다.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지 벌써 56년이나 지

성을 들였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깨버려야 하는 고집을 가진 사람!

났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도자기를 빚을 수 있고 타닥이는 장작

정성을 다해 빚고 유약을 바르고 가슴 졸이며 불을 때고도 버려진 것이 얼마든

의 소리만으로 불꽃의 색깔만으로, 온도를 알 수 있다. 하지만 명

가! 하지만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도 망치를 쥐어야만 한다.

품을 만드는 도공의 길에 끝이란 있을 수 없다.



이천땅, 도공의 마을로 초대합니다

명당을 찾아서....

“명당”이라는 말을 한다. 이승에서 살아갈 집터나 저 세상에서 머무를 묘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도 어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 명당을 찾는 노력은 태초이래 계속되어온 것으로, “풍수지리”라는 체계적인 학문이 있기도 하니 미신이라 무시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세상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곳이라는 조화로운 세계관이 담겨있기도 하다.

경기도 이천 땅은 예로부터 물과 흙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전국에서 이름난 이천쌀, 달고 싱싱한 복숭아, 천연 온천 등은 이천의 자랑거리다. 특히 전통 도자기는 이천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름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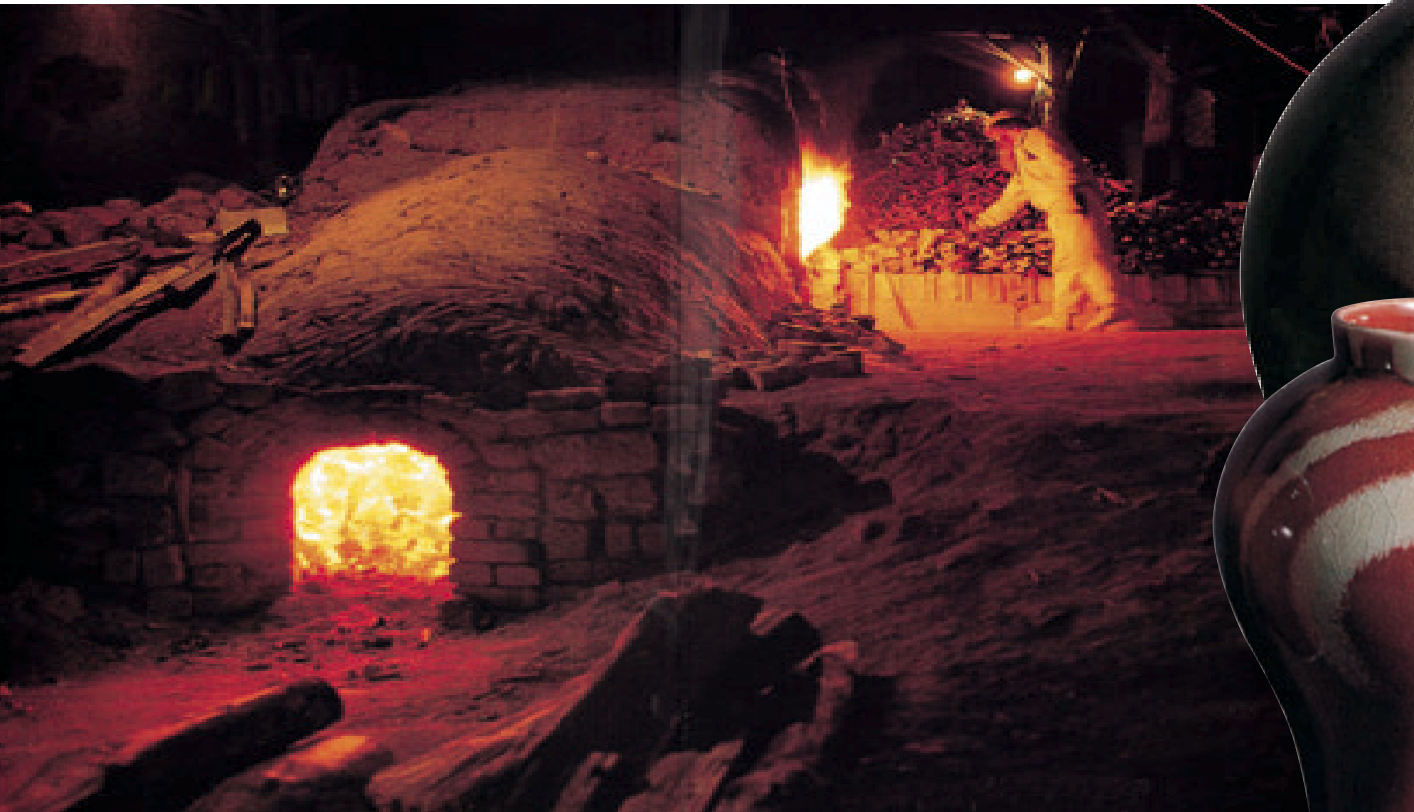
“흙과 불의 큰 잔치”

“흙과 불의 큰 잔치 - 도예마을 이천으로 초대합니다.” 매년 열리는 이천 도자기 축제의 캐치프레이즈다. 이천이 전통도자기의 맥을 잇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9세기 말엽 당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온 도예공업은 고려 명종 때 ‘청자문화’의 절정을 이루었으나 13세기 초 몽고의 침입으로 큰 타격을 받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청자’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가마의 불이 완전히 꺼지면서 분청사기의 모체가 된다. 청자와 백자의 중간형태로 ‘분장청자’라고도 불렀던 분청사기는 쇠락한 청자의 부족한 면을 덮어주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서민적이고 활달·건강한 체질을 보이는 분청사기는 중국에도 없는 우리의 독특한 창안종으로서 일본에 전파된다. 이어 ‘백자’가 출현했으나 일제 침략과 더불어 조선가마의 불이 꺼짐으로써 고려청자에서 조선백자에 이르는 우리 도자기문화의 맥이 끊기고 말았다.



우리의 밥상과 일상생활을 함께하던, 또한 우리 민족의 미적세계를 구현해 오던 도자기가 왜색과, 서양식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용기를 굽는 칠기가마들만이 전국 몇 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이천 사기막골에는 특히 칠기가마가 밀집해 있었다. 그곳에는 끈기와 불에 견디는 힘이 좋은 도석질 사토가 널려있어 가마를 앉히기에 좋았다. 또 산에 장작감인 적송이 많은데다 이천이라는 땅이름이 말해주듯 물이 좋아 흙그릇 빚기에 맞춤이었고 이포나루는 물건을 내기에 수월한 물길을 열어 주었다.

가마의 불꽃처럼 내형춘도 도자기와 함께 구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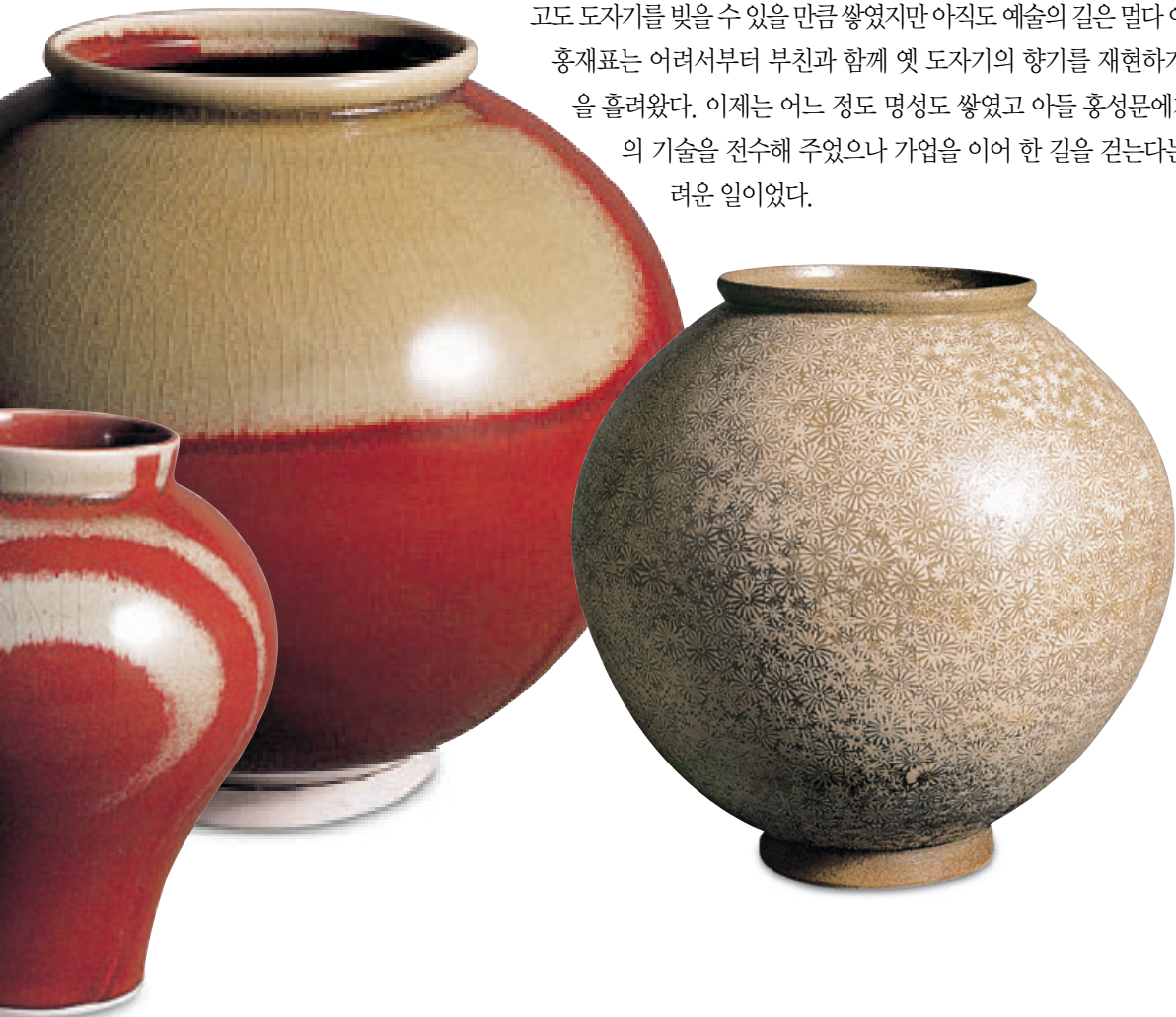
가업을 이어서

홍재표는 도자기를 만드는 전과정을
수작업으로 일관한다. 전통가마에
소나무장작만을 고집하고 일체
화공약품이나 안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진사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전통고유의
유약을 재현한 것이다. 가마안에서 이루어지는
찰라의 순간 우연의 변화로 도자기에는
추상화같은 채색이 이루어진다.
홍재표의 도자기 속에는 자연과 전통이
녹여 숨쉬고 있다.

하늘이 내린 땅, 이천에는 조선시대 왕실의 자기를 만들던 광주분요의 도예기술과 전통을 이어받아 많은 도예가들이 터를 잡고 있었다. 옛 도자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천신만고를 거듭하는 장인들 중에 토정 홍재표가 있다. 홍재표의 아버지인 홍순환 역시 이천 땅에서 도자기를 굽던 도공이었으며 그의 혼이 담긴 요장은 홍재표에게 남겨진 소중한 유산이었다. 또한 홍재표의 아들 역시 그 가업을 계승하고 있으니 그의 아름다운 예술품과 한 평생 걸어온 장인의 길, 가업을 잇는 정신 등이 인정되어 2000년 경기 으뜸품으로 선정되었다.

홍재표는 13살 때부터 부친에게 도자기공예를 전수 받았다. 현재 그의 나이 69세, 56년간 도자기를 빚어온 셈이다. 그러한 연륜은 이제 눈을 감고도 도자기를 빚을 수 있을 만큼 쌓였지만 아직도 예술의 길은 멀다 여겨진다.

홍재표는 어려서부터 부친과 함께 옛 도자기의 향기를 재현하기 위해 땀을 흘려왔다. 이제는 어느 정도 명성도 쌓였고 아들 홍성문에게도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주었으나 가업을 이어 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도자기 전쟁

항간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의 아름다운 도자기 기술을 탐낸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도공과 가마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에게 조선의 좋은 차잔을 갖는 것은 부와 명예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성(城)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되며 마침내 신기(神器)로 까지 부르게 되었다고 하니 일리가 있기도 하다. 특히 조선도공이 만드는 막사발은 보물(이도다완, 井戸茶碗)로 소중히 다루었다.

우리 전통 도자기는 가난한 무명무념(無名無念)의 삶 속에서 자연과 같이 자연의 일부가 되는 도공들의 욕심 없는 마음이 빚어진 것이며 그 결과 꾸밈없는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드러났다. 익살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듯한 수더분함, 자유롭고 분방한 형태와 문양으로 독특한 미의 세계를 추구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임진왜란으로 우리 땅에서 도공과 가마를 앗아갔다. 또한 숨가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 자연의 미를 포기하기도 했다.

일본은 알까? 기술은 가져가도 정신을 앗을 수 없다는 것을. 가문을 이어 도자기를 빚는 이천 도예촌에 살아 숨쉬는 우리 민족의 기품은 모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젠 깨달았을까....

꺼지지 않는 불꽃



청자·분청사기·백자, 부친과 함께 천신만고 끝에 전통 도자기를 부활시키고 있었지만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도자기는 사치품이었다. 또한 우리 것

이라는 이해도 부족해 옹기 항아리 사가는 데 끼워줄 정도의 서러운 대접을 받는다. 그러다 68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천 도자기가 마 불꽃에 활기가 당겨진다. 이천 도예촌 형성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전통도자기를 흠모하고 있던 일본인 관광객들이 몰려왔다. 칠기가마의 남의 집 신세를 벗어나 지금의 도예촌에 제대로 모습을 갖춘 가마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78년에는 14곳의 요가 들어섰고 80년대 초에는 39개로 늘더니 그 뒤 우후죽순격으로 불어나 현재는 2백 여 곳에 이르게 됐다. 이천이 명실상부한 한국 도자기의 메카로 우뚝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홍재표의 부친 홍순환은 이런 도자기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68년 별세하고 만다. 스승으로 동료로 서로의 예술혼을 키워가던 아버지를 잃고 홍재표는 도자기 르네상스를 혼자 개척해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였다. 홍재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요장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옛 도자기 재현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공정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통적인 방법인 소나무 장작가마로만 소성하며, 그 어떤 화학약품이나 안료를 일체 쓰지 않은 채, 자연유약과 흙으로서만 다양한 색을 구사한다. 절제된 선과 색을 통해 화려한 우아함과 은근한 아름다움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소나무 전통가마를 짓는 기술은 가문의 노하우가 살아 숨쉬는 것으로, 한국민속촌의 가마를 비롯 근래에는 이천 실업고등학교에 전통가마를 지어주기도 했다. 홍재표는 도자기 뿐만 아니라 가마축로에 있어서도 일인자라고 볼 수 있다.

1972년에는 명문 미술 사학 홍익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전통도자기를 가르치기도 한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가 대학 강단에 서게 된 것이다. 75년부터 홍재표의 예술세계는 이천 요장을 넘어서



게 된다. 일본의 박물관·백화점 등을 순회하며 그의 작품을 전시했고, 78년에는 요장명도 지금의 “이조요”로 개칭하여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8년에는 국제 도자기 워크샵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미국 20개 주립대학을 순회하며 실연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홍재표의 대표작이라 할 “진사”는 고려시대부터 있던 우리전통 고유의 유약을 재현한 것이다. 진사의 표면은 보석같은 발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마 안에서 찰라에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변화로 추상화 같은 그림으로 채색된다. 건조하고 바람이 없는 날만 진사의 빛을 볼 수 있으니 대를 이은 장인의 숨결이 아니고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해서 오늘날 진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많으나 제대로된 작품을 빚어내는 이들은 드물다. 홍재표의 진사는 유럽에서도 호평을 받아 대영 박물관에 1990년부터 소장되어 있으며 경기도 박물관에는 작업하는 전 공정이 영상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욕심없는 마음을 빚는 이조요

홍재표는 옛것을 재현한다는 일이 단순히 형태만을 똑같이 빚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음 또한 옛사람처럼 욕심없이 담아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가 걸어온 50여년 장인의 길, 이제 욕심없이 할 수 있다 싶으니 어느새 백발임이 안타깝다. 하지만 그의 아쉬움은 실망할 것이 아니다. 이제 그의 아들 홍성문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며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3대를 이어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 그들의 작품은 결코 혼자 만든 것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찾아가는 길

이천에서 서울방향으로 3번국도를 따라가다 도자기촌 거리 입구, 광주요 공장 뒤편 이조요.

가볼만한 곳

설봉산, 도드람산, 이천온천, 해강도자기미술관, 이천도예촌

고집스런 옹기장 김일만



흙과 불, 그리고 7대를 이어 면면히 흐르는 장인의 혼

흙은 자체로는 무기질이면서 그 안에 무한한 생명의 씨앗을 담아 키운다. 또한 흙은

살아 숨쉬는 전통옹기를 고집하며 흙과 더불어 7대째 살아가는 오부

일정한 모양과 성질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는다. 세월과 함께 풍화하여 모래가 되고

자옹기. 그들이야말로 흙과 숨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연인이라 할

진흙이 되고, 때론 바위로 남아 자연을 이룬다. 흙은 자연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수 있다. 이포나루 오부자 옹기의 질박한 모습을 보면 흙과 더불어 숨

흙으로 빛되, 다 빛고 나면 빛은 사람의 얼굴을 너무도 닮아 있는 옹기. 거짓없이 오

쉬며 살아야 인간은 행복할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직 땀으로 빛어야만 비로소 옹기는 숨을 쉰다.

스스로 숨을 쉬는 과학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전통옹기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늘 흙과 함께 지내 왔다. 흙과 벚짚을 섞어 흙벽을 만들어 바람을 막았으며, 구들을 놓아 불을 다스려 온기를 취했다. 이렇듯 흙을 다른 자연과 어울리게 하여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며 흙의 문화를 이루어 온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문명이지만 완전히 인간의 것이 아닌, 자연에서 취하되 자연의 특성과 모양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전통 문화의 특색이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 곁에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함께 있던 물건이 다름 아닌 옹기가 아닐까.

한껏 인간의 조형미를 뽐낸 화려한 자기(磁器)에 비하면 그저 투박한 시골 아낙의 몸매와 같은 소박한 자태·별이 잘 드는 장독대 위에 묵묵히 눈비 맞으며 한 집안의 먹거리를 지켜 온 우리의 옹기. 가마 안에서 불과 공기로 자연스럽게 산화되어 검붉은 빛깔로 태어난 흙의 아들. 물을 머금어 가두되, 스스로 숨 쉴 줄 아는 살아있는 오지 그릇. 이렇게 과학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전통옹기가 이제는 주거환경의 변화와 플라스틱 옹기와 냉장고의 보급, 그리고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광명단 옹기의 득세로 인해 점점 우리의 일상 밖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있다.

21세기의 화두는 환경.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이제 전통옹기의 진가를 알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모습은 반가운 일이나 아쉬운 것은 옛방식 그대로 옹기를 제작하는 곳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 전통의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몇몇 옹기장이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다 할 일이다. 그러한 옹기의 장인들 가운데 여주 이포나루에서 7대째 전통옹기를 이어가는 옹고집이 있으니, 그가 바로 2000 경기 으뜸으로 선정된 김일만(59)이다.



흙 속에 묻혀 평생 전통옹기를 만들어온 김일만씨. 흙을 다루는 손길에서 7대를 이어온 장인의 혼을 느낄 수 있다.



유약을 입은 채 가마작업을 기다리는 옹기. 살아 숨쉬는 옹기의 과학성은 현대의 첨단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다.



4형제 모두 오부자옹기의 일꾼. 책보다 흙을 먼저 만졌던 아들들도 이제 모두 옹기의 장인으로 전통옹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오부자가 나란히 물레에 앉아 옹기를 빚는 모습은 대를 이어 전통을 지켜가는 옹기 명가의 진풍경이다.

숨쉬지 않는 옹기는 옹기가 아니야

못 배운 사람일수록 흙일이 쉽게 손에 잡히는 법이지



겨우 초등학교 몇 개월이 학력의 전부인 김일만씨. 6대조부터 내려온 일이라 그에게 흙일은 천부(天賦)이자 소명이었다. 지금이야 전통옹기를 이어가는 사람 들에게 장인이라는 그럴싸한 칭호도 붙여주지만 과거 점(옹기)장이들은 농부들에게도 천대받는 신세에 그저 밥술만 먹어도 다행스럽던 시절이었다고 한다. 8남매의 맏이로 태어난 그는 90년대 까지만 해도 4형제가 모두 옹기일에 종사했으나 광명단 옹기와 가스가 마에 대량으로 구워진 옹기에 밀리면서 하나 둘 옹기 일을 접고, 이제 는 김일만 혼자 아들 4형제와 함께 여주 이포나루에서 7대째 전통옹기 를 지켜가고 있다.

그의 작업장은 3, 40 미터 남짓한 천막 한동과 뒷마당에 가마 3대가 전부. 올 해 5월까지의 목조 건물의 고풍스런 맛이 있는 작업실이었지 만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다시 그 자리에 천막으로 작업실을 복구해야 했다. 겉모습은 평범한 천막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옹기사랑의 훈훈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출입문 좌측으로 5대의 물레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김일만과 아들 4형제의 작업대. 지금은 대부분 전 기로 돌아가는 물레를 쓰지만 오부자들은 아직도 전통 수동식 물레를 고집한다. 수동식 물레를 쓰면 전기물레로 한꺼번에 찍어내는 공장식 옹기에서 느낄 수 없는 조형미를 살릴 수 있다는 잊점이 있다. 또한 경





사가 거의 60도에 가까운 전통가마에 용기를 쌓는 일은 하체의 힘이 없으면 엄두도 못낼 일. 그래서 평소 발로 물레를 돌리는 일은 한 사람의 용기장인이 되기 위한 자기단련이라 할 수 있다.

용기는 지역에 따라, 흙에 따라, 불의 온도에 따라 그 모양과 색깔이 천태만상이라 한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흙은 전남 무안과 경상도 의성에서 운반해서 쓰고 있다. 무안의 흙은 평야 쪽 흙이라 점성은 강하나 불에 약하고, 의성의 흙은 산에서 캐온 흙이라 점성은 약하나 불에 강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서로 궁합이 맞는 흙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섞고 이물질 제거 후 숙성시킨 뒤에야 비로소 용기를 빚을 수 있는 흙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오부자용기를 용기의 명품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전통가마에 있다. 쉽게 높은 온도(1100℃정도)와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스가마에 비해 장작가마는 불의 온도를 맞추는 일이 이만 저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의 불량률이 없는 가스가마에 비해 장작가마에서 완전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6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또한 경사진 가마 안에 무게가 50~60kg에 이르는 용기를 쌓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다. 참나무로 3일간, 다시 소나무로 하루, 이렇게 만 4일간 꼬박 불을 지펴야 비로소 하나의 용기가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다.

이렇듯 전통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광명단 용기와 가스가마로 구워낸 대량의 개량용기에 밀려 그는 자식들을 평생 가난과 벅하게 만들었다며 씩씩하게 웃는다. 그래도 그는 납성분이 있는 광명단 용기나 쉽게 깨지고 음식맛이 변하는 개량용기는 만들 수 없다고 한다. 내 배 부르려고 남에게 거짓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그의 강직함이 전통용기를 지켜내는 힘이 아닐까.

전기 물레가 아닌 발로돌리는 수동물레를 고집하는 오부자용기. 그래서 오부자 용기에 자연스러운 조형미가 살아나 전통용기의 질박한 맛을 더해준다.





광명단과 옹기

납을 주성분으로 한 화공약품으로 광명단이라는 것이 있다. 광명단[鉛丹]은 납을 산화하여 만든다고 하며 그 색은 주홍이다. 오지에는 매용제로 사용되는데 오지 그릇에 입혀 구우면 붉은색이 나고 표면이 유리알 같이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 빛난다. 우리나라에 신문물이 소개되기 시작한 19세기 말엽에 광명단이 오지 그릇에 입혀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일제 치하에서 광명단을 입힌 오지 그릇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2차대전 중에 더 성행했다. 광복 뒤에도 계속 전국에 만연되어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납 자체인 광명단은 비록 적은 양이라도 사람이 자주 먹으면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더구나 광명단 유약은 산과 열에 약해서 김치를 담아 두거나 불에 오래 올려 놓으면 납성분이 음식물에 섞이게 된다.

광명단 유약독은 납의 독성뿐만 아니라 오지 그릇 표면에 매끄러운 납유약을 발라서 구우므로 그것이 독에 스며들어 모든 바람 구멍을 막아 버린다. 오지 그릇을 만들 때 납이 섞인 유약을 입혀 구우면 연료비가 절감되나 오지의 질이 약하여 두들기면 맑은 소리가 안 나고 탁한 소리가 나며 쉽게 깨진다.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에는 독소가 있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지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광명단 독이다.

번드르한 광명단 옹기에 비해 겉모습은 투박하지만 저장한 음식의 발효와 부패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오부자 전통옹기. 직접 만든 천연유역을 발라 광택은 없지만 인체에 무해하며 그 빛깔이 소박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친숙하다.

오부자옹기의 5원소 - 물과 흙과 불과 바람, 그리고 옹기를 빚는 장인의 땀방울

진흙을 가마에 넣어 불과 공기가 자연스럽게 흙과 어울려 산화변조된 옹기는 그 제조과정부터 인공적인 요소는 찾아 볼 수 없다. 물과 흙과 불과 바람, 그리고 옹기를 빚는 옹기장이의 땀방울만이 전통 옹기에 필요한 전부이다. 김일만은 제대로 된 옹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년은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스무살이 넘어 버리면 손이 굳어져 옹기일을 익히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십대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그의 집에는 조선시대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 도공의 후예 심수관의 손자도 1년간 머물며 옹기일을 배워가기도 했다. 그러나 두 세대 배우고 난 뒤 밖에 나가 마치 자신이 전통옹기의 장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가벼운 세태를 개탄한다.

도로변에 접해 있는 김씨의 옹기터는 언제 또 다시 이주해야 할지 모르는 형편. 그래서 그는 근방 대심면에 옹기터를 새로 마련하여 점차 이전을 계획 중이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둘째와 셋째 아들은 다양한 생활토기를 만들어 전통옹기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흙으로 빚되, 다 빚고 나면 빚은 사람을 너무도 닮아있는 옹기. 거짓 없이 오직 땀으로 일구어낸 옹기의 명가, 이포나루 오부자옹기의 질박



한 모습은 흙과 더불어 숨쉬며 살아야 인간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다.



전통불가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전통옹기. 전통가마로 구워낸 오부자 옹기는 불량품이 30~40%로 가스가마에 비해 높지만 옹기의 내구성과 공기 투과율을 높여준다.

이포나루 오부자옹기점에 가면 흙과 더불어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박한 얼굴을 닮은 향아리를 만날수있다.

찾아가는 길

이천에서 이포방향으로 15km지점. 금사면 금사교 방향 국도 좌측 오부자옹기

가볼만한 곳

여주 불교 목야박물관,
천서리 막국수 촌, 여주유원지,
잠사민속박물관 등

천연염색가 이민정



자연을 관조하며 삶을 직시하며

땀별에서 허리를 휘감는 고통을 느끼며 염색을 하는것 보다 어려운 일은

몇번인가 손이 트고 또 트고 급기야는 화상을 입기까지한 이민정의 손, 그리고

천에 치열한 삶의 흔적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손의 손톱에는 메니큐어 대신 빠지지 않는 쪽물이 들어있다. “햇살 좋은 들판

자연에서 얻어진 풀들에서 자연과 닮은 색을 얻어내는 과정이 천연염색

에서 꽃을 따고, 꽃풀의 사랑스러운 성장을 지켜보거나 명주·모시에 맑디고운

이다. 자연을 닮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으로 옷을 해 입는다. 자연과 인간

물이 스며들때 온몸을 감싸는 희열은 힘겨움 마저 소중한 것이 되게 합니다.”

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은 바로 자연을 닮은 색, 자연의 색이다.

자연과 인간의 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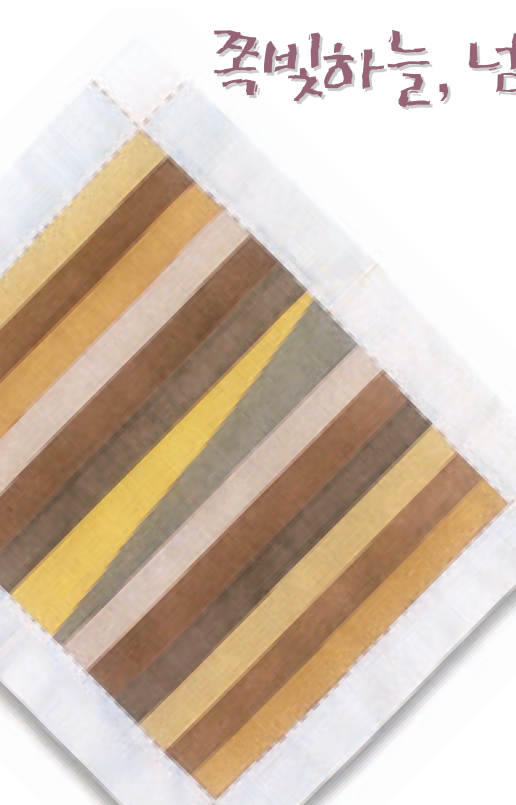
빨래줄에서 훑날리는 쪽물이 가득 담긴 천을 보면 마치 하늘이 눈앞에 와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쪽빛은 가을 하늘처럼 푸르고 고요한 심연 속에 놓여 있는 물처럼 깊다. 쪽빛이 바로 자연의 색이기에 쪽은 바로 자연일 수밖에 없다. 천연염색은 바로 이러한 자연을 근간으로 한다. 자연에서 얻어진 풀들에서 자연과 닮은 색을 얻어내는 과정이 천연염색이다. 인공의 염료를 사용하여 얻어진 색이 회색도시에서 언뜻 비치는 하늘과 같다면 천연의 색은 고즈넉한 시골의 푸른 하늘처럼 넉넉함을 엿보게 한다.

인류는 차가운 모노톤이나 금속성보다는 자연의 빛깔을 훨씬 좋아했다. 그러한 빛깔에 관한 애정은 이미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류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나뭇잎에서 가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의복이 있어왔고, 이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계층을 구별해 주는 사회적 역할까지 담당하였다. 구석기시대를 전후해서 염색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이 시기의 의복은 그야말로 자연의 빛깔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식물의 꽃이나 열매, 동물의 피 또는 황토 등을 문질러 거칠고 소박한 색을 내었다고 한다.

문지르는 방법에 이어 즙을 내는 신기술이 등장하였다. 염색제의 즙을



쪽빛하늘, 넘실대는 황토빛이 몸을 감싼다





내어 끓여 염색액을 만들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매염제로 철장액이나 회즙, 산 등을 이용하게 되자 보존력 있는 색깔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화와 산업화 속에 등장한 인공의 안료는 대량생산성과 편리함을 무기로 천연염료를 밀어냈다. 천연염료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함께 하던 자연도 동시에 멀어졌다. 문명과 자연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자연은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흡사 인간과 자연은 화해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새천년의 화두는 바로 자연과 함께이다. 자연이 없이는 인간의 삶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연을 닮고 싶은 사람들은 자연으로 옷을 해 입는다. 자연과 인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은 바로 자연을 닮은 색, 자연의 색이다.

자연의 산천초목으로 색을 내는 사람, 맥이 끊어진 듯 했던 전통의 천연염색을 발굴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천연염색을 연구하는 이민정(59)이다. 지금도 그녀는 이름없는 풀들에서 가슴저미는 색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름모를 풀 한포기에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



봉숭이물에서 쪽물까지

몇 번인가 손이 트고 또 트고 급기야는 화상을 입기까지 한 이민정의 손, 그리고 그 손의 손톱에는 메니큐어 대신 빠지지 않는 쪽물이 들어있다. 천연염색은 고운 색만큼 아름답고 낭만적인 작업이 아니다. 작은 찻잔에 찻정도의 염료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허리를 굽혀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고 지루하기까지 하다. 일을 배우겠다고 온 젊은 사람들도 며칠을 견뎌내지 못했다고 한다. 제일 오랫동안 남아 있던 사람도 미안함에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도망치듯 떠났다고 한다.

처음 천연염색을 시작하기 전 이민정의 마음에는 자연으로 가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런 마음에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우연치 않게 시골의 한복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유리창 속에는 고운 한복이 놓여 있었지만 가게 앞에 놓여진 쓰레기통에는 한복 천 조각들이 버려져 있었다. 갑자기 버려진 고운 천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천을 들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천을 잇기 시작했다. 조각보를 만들려고 했지만 바느질을 해본적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박물관을 찾아다니고 책을 보면서 조각보 만드는 기법을 혼자 터득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느질에 매달렸다. 단지 아깝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은 무려 40일이나 걸렸다. 낭비가 판을 치는 세상에 버려진 천 조각을 이어 쓸모 있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선인들의 지혜가 그에게는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마음을 담는 정성보다는 대량생산과 물신화가 이루어진 세상에 조그만 항변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천들은 화학약품으로 물들여진 천이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인공의 색은 천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천연

자투리 천을 이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운 조각보를
만드는 이민정의 손에는 꽃물이 빠질 날이 없다.
꽃물에서 꽃물로 그리고 세상의 물들이 빛을 낸다.



세상 지천으로 깔린게 물들이지만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쪽발도 직접 가꾸어야 한다.



향기로운 빛깔

■ 커피로 염색하기

1. 끓는 물에 커피를 넣고 잘 풀어준다. 2. 염색이 잘 되도록 소금을 1큰술 정도 넣고 잘 풀어준다. (식초를 넣어도 무방하다) 3. 끓는 커피물에 천을 넣고 20분이상 끓인다. 4. 커피물에서 꺼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군다. 5. 그늘에서 잘 말린다.

■ 양파껍질로 염색하기

1. 우유를 물에 섞어 묽게 만든 용액에 염색할 손수건을 30분 가량 담가 둔다.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옷감 사이사이에 고루 스며들어야 자연색 물감이 고루 밴다.) 2. 30분 후 손수건을 꺼내 잘 말린다. 3. 양파의 가장 겉껍질인 갈색껍질을 벗겨 물에 넣고 천천히 오래 끓인다. 4. 그릇에 가제 손수건을 걸치고 양파껍질 끓인 물을 붓고 양파껍질 끓인 물을 40도 정도로 식힌다. 5. 손수건을 3~4분 정도 담그고 약한 불로 가열하면서 온도를 계속 40도로 유지시킨다. 6. 명반 40g 정도를 더운물에 녹여 매염제로 만들고 염색된 손수건을 담근다. 7. 온도를 계속 40도로 유지하면서 5분 정도 담가 둔다. 8. 염색이 다 끝나 잘 말리고 나면 노란 빛깔을 입은 양파껍질 손수건이 탄생한다.

염색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산과 들을 다니며 풀과 열매를 캐어 문지르고 끓이는 일을 반복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투리천을 이어 조각보를 만드는 일을 잊지 않았다. 찻물을 끓이기 위해 올려놓은 불이 꺼지고 가스가 새어나오는지도 모른채 일을 하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도 몇 번이나 되었다. 배울 곳도 없었고 간신히 배움을 주는 사람에게서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었다. 한약사전을 들고 풀의 성분과 색을 대조해 보았고 고문헌을 뒤져 옛 자취를 밟아 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형형색색의 빛깔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색을 얻어내는 것이 천연염색의 첫 발걸음이었다면 그 색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물들이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1997년 여주에 등지를 틀고 천연염색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쪽을 직접 재배하며 염료를 얻기 위한 고된 작업을 계속했다. 3월 중순경에서 4월경에 심은 쪽은 7월 하순부터 8월에 수확하여 숙성단계를 거쳐 안료를 얻는다. 그러나 안료를 얻는 과정에서부터 그 안료를 이용하여 염색을 하는 단계는 어느 하나 쉬운게 없다. 붉은 색의 홍화, 노랑색의 치자, 보라색의 지치를 끓이고 숙성시키고 행구고 짓고 땡벌에서 온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허리가 휘었지만 그보다 어려운 일은 치열한 삶의 흔적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연과 선인에게 배우는 지혜

‘온고지신(溫故知新)’ 이 말은 이민정이 가장 좋아하는 고사성어라고 한다. 옛 것을 통해 새것을 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는 퇴락한 낡고 뒤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서양의 기계론적 사고의 유입과도 맞물려 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수록 발전한다는 사고는 과거를 시대착오적인 유물로 만들어버렸다. 자연이 그러한 생각과 함께 멀어져간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그의 화두는 ‘자연’ 과 ‘옛것’ 이다.

여주의 ‘채현천연염색연구소’ 는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만들어졌다. 어울림의 멋을 터득해서인지 ‘채현천연염색연구소’ 는 항상 열려있다. 예술가와 공학도가 함께 어우러지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교감이 이루어진다. 자연의 빛을 띠면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고 치료효과까지 갖추고 있는 천연염색의 특징 때문인지 그의 공간도 상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의 상생은 바로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문제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기보다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이민정의 삶에는 열정이 넘친다.

모든 색이 자식 같아서 어떤 색도 편애할 수 없다는 이민정은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길도 없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염색거리를 찾을 때, 꽃거품 일도록 한도 끝도 없이 고무래질을 하며 물발을 세울 때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서 일이 힘에 겨웁습니다. 그러나 나서 살아온 서울을 떠나 햇살 좋은 들판에서 꽃을 따고, 쪽풀의 사랑스러운 성장을 지켜보거나, 명주·모시에 맑디고운 물이 스며들 때 온몸을 감싸는 희열은 힘겨움마저 소중한 것이 되게 합니다.”



향기로운 빛깔

■ 일상속의 염색

천연염색은 소수의 장인에 의해 행해지는 일반인들이 감히 꿈꾸지 못할 영역, 혹은 특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도 그럴것이 빛깔없는 대상에 자연색깔을 붙여 넣어준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커피·망콩·홍차·양파·포도·민들레와 같은 재료들로도 천연염색이라는 신비로운 주술의 세계에 도전해 볼 수 있다.

커피로 물을 들이는 것이 향기로운 빛깔을 창조하는 것이라면 양파를 이용해서는 알싸한 맛의 빛깔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염색이 되고 나면 대상에는 빛깔만 입혀질 뿐 염색제는 사라지고 말지만 자신이 직접 염색한 작은 손수건, 스카프, 테이블 보 등등이 놓여진 곳에서는 그 향기와맛이 되살아날 것이다.



찾아가는 길



영동고속도로를 이용, 이천 지나 여주톨게이트를 나와 목야불교박물관에서 원주방향 4km 지점, 채현염색연구소 간판

가볼만한 곳

신록사 영월루 고달사지
석봉도자기미술관 목야불교박물관
도예민속촌 세종천문대
가마섬유원지 강천리유원지 여주관광농원